

아산재단, 장학생 1240명에 장학금 50억원 전달

공포 먹고 자라는 가짜뉴스

대학교 장학생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40명, 대학생 700명, 고등학생 500명 등 2020년도 아산장학생 총 1240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대학원생 장학생 40명은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30명, 해외에서 10명을 선발했다.

대학교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이 가운데에는 '성적우수 장학생' 178명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69명, 신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다솜장학생' 41명,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82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정몽준(뒷줄 오른쪽 여섯번째)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이 25일 '2020년도 아산장학생'에 참여해 장학생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금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도 포함됐다. 나래장학생과 다솜장학생 210명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로 월 20만원을 지원

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재단은 지금까지 3만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74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가장 존경받는 기업' 9년 연속 1위

삼성전자서비스가 25일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평가에서 서비스센터 부문 9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기업의 신뢰도,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부문별 순위를 발표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7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간부진, 애널리스트 등 1만3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부문별 1위를 선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도, 사회공헌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제품 점검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에서 가장 많은 180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당일 수리를 목표로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이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어디서나 신속하고 친절한 출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기자 수첩

김나인
(산업부)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틈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격한 기침을 하며 "우한에서 왔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고함을 지르며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한 유투버가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확진 환자가 도망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확진자들의 잘못된 신상정보가 사실인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일도 있었다.

가짜뉴스는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공포와 불안감을 먹고 자라난다.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혐오를 불러넣는 기생충 같은 존재다. 최근 다시 재조명된 전염병 소재 영화 '컨테이션'에 등장하는 배우주드로는 진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역할로 분해 개나리아이백신이라는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선동한다. 재난을 기회로 삼아 개인의 잇속을 챙기거나 관심을 받으려 하는 이기적인 형태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라는 뜻의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을 합친 '인포데믹(정보전염)'이라고 부른다.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와 만나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도 수사기관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와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개인의 대응도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를 거르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극적인 글과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직접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찾는 등 공을 들여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때다.

/silkni@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음 2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운 공덕이 오늘 다시 오게 되네. 48년생 내가 독불장군(獨不將軍)이 아닌가 되돌아보자. 60년생 오랫동안 믿을 지날 때 갖을 고쳐 쓰지 마라. 72년생 재물이 적으나 그래도 행운. 84년생 먼 곳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자.



37년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사 인색하지 않도록 힘써라. 49년생 무관심이라도 따지기보다는 모르는 척 지나가기. 61년생 부족하다고 업신여기다 큰코다침. 73년생 지난 일은 빨리 잊자. 85년생 시간을 잘 지키기.



38년생 세상이 복잡하여도 살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 50년생 숨기고 있던 간사한 꾀를 동업자가 드러내니 오싹. 62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74년생 배려하면 나도 존중받는다. 86년생 소식이 오니 서류를 제출한다.



39년생 그리운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이 나를 반긴다. 51년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자녀의 진중한 행동에 감동. 63년생 기대만큼 성과도 있다. 75년생 매파에게 소식이 오니 뜻대로. 87년생 심한 운동으로 무리.



40년생 강하게 하는 충고는 나만 힘들어진다. 52년생 아름다운 환경은 주변이 바르기 때문. 64년생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나에게 무리수다. 76년생 남의 싸움에 구경하지 말라 해를 입는 일진. 88년생 동료와 지나친 음주는 삼가.



41년생 세력이 많아도 내리막길을 예상할 것. 53년생 독야청청(獨也靑靑)도 시대에 맞게 하도록. 65년생 부모님을 생각하여 제사 잘 지내라. 77년생 비단웃을 입는 데다 꽃을 든 것처럼 행운이 가득. 89년생 표정 관리에 힘써야.



42년생 연금보다 지출이 많아지니 어찌할까. 54년생 친한 친구 소식이 상복수라 서글픔. 66년생 거침없이 투자해도 무방. 78년생 홀로 외로우나 왕따는 아니니 기다려보라. 90년생 기다리던 직장에서 소식이 오니 기쁘지 않다.



43년생 자녀의 훌륭한 인격은 부모의 교육에서부터. 55년생 열을 얻은 듯 기쁜 하루. 67년생 주변 사람 관리를 편하게 해라. 79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 배우자에게 차갑지 않도록. 91년생 아침부터 심년 목은 체증이 해소된다.



44년생 배우기도 어려웠는데 올바로 싸우기도 힘들다. 56년생 만나면 가족끼리 싸움이니 골육상쟁 같다. 68년생 근검으로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 80년생 건강이 각자 최우선 행복. 92년생 몸이 파래지도록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다.



45년생 많은 재산도 2대를 가기 어려우니 잘 생각할 것. 57년생 주변에서 최씨가 도와줄 것. 69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순간 거짓말로 변한다. 81년생 닭의 부리라도 되려면 좀 더 성실성이 요구. 93년생 경기로 스트레스 발생함.



46년생 흥망성쇠(興亡成衰)의 고독함. 58년생 혼자 있다고 쓸쓸한 것이 아니다. 70년생 부족해도 인내하면 복록이 찾아온다. 82년생 괴로움 속에도 즐거움이 있다. 94년생 조직에서 소속감이 있어야 할 터.



47년생 배우자가 뛰어난 미인임을 나만 모른다. 59년생 오랜 세월을 두고 변치 않은 친구를 만나다. 71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 마무리. 83년생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 95년생 주변이 복잡하니 일찍 귀가하라.



김상회의四季

기도의 바람

기도는 이루어지면 이뤄질 만한 복덕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원하는 바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복덕 인연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망의 마음이나 불평을 하지 않게 된다. 앞의 글에서 "발원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뤄지지 않게 한다."라고 했다.

조금 더 의역했지마는 보현보살행원품의 원 구절은 '욕행악법 개실불성 소수선업 개속성취'(欲行惡法 皆悉不成 所修善業 皆速成就)라고 되어있다. 즉, "악한 일을 하려 한다면 성취되지 말며 선한 일이라면 모두 다 속히 이뤄지이다."라는 해석이 직역에 해당한다.

공덕을 회향한다는 '보개회향'(普皆回向) 대목의 내용이다. 지금 내가 바라는 일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실제로 이뤄진 후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차라리 이뤄지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

필자의 지인 중에 남편의 승진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이 있었다. 운은 답답했다. 예상대로 그녀의 남편은 진급에서 밀렸다. 남편이 낙담하여 있을 때 필자로부터 보현행원품 사경을 권유받은 부인은 사경을 계속하여 3편의 사경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급하게 필자를 찾아와 다짜고짜 사연을 얘기한다.

영전한 직장 동기는 직원들의 부러움 속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해외 출장지 외곽의 현장을 향하던 헬기 사고로 운명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인과 남편은 아연실색하였다.

만약 승진됐더라면 남편이 그 출장지에 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장님 말씀대로 바라는 대로 이뤄지는 게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걸 알겠어요!"라고 했다.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담할 일이 아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다면 우환은 덜해지고 공고해지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6	5	2		
2		4		6
		1	3	
5	2			
2		1		6
		4	3	2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판 브라운 저 | a9press | 15,000원

문제풀이:

3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도쿠는 가로,세로,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4	2
2	8			1 9
5	4		6	8
	9	7	2	4
5	4		8	1
2	6	3	1	5
3	7		1	4
6	1		3	8
8	2		7	3

정답

9	2	8	7	1	9
7	9	9	1	8	2
8	1	9	2	9	7
2	8	1	9	7	9
9	9	7	8	2	1
1	7	2	9	9	8
9	8	1	9	6	7
8	8	8	7	2	9
9	7	1	8	9	2
7	6	2	8	9	1
1	2	8	9	6	7
8	9	9	2	8	7
6	1	8	9	2	8
2	9	7	6	1	9
8	7	6	1	9	8
8	2	8	2	8	2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6호